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10월 31일(금)
--(윤력 9월 11일)--
Пятница
31 октября 2025 г.
№ 42 (1215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1월 4일은 국민 단결의 날로 국민의 단결과 화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날이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러시아 국민 단결의 날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

11월 4일 국민 단결의 날을 맞아 사할린과 쿠릴 열도 각지에서 수십 개의 기념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오전 10시 45분 카잔성모 이콘을 들고 시민들의 행진이 진행되면서 그리스도 성탄 대성당을 출발해 '러시아-나의 역사' 역사 공원까지 행진한다. 이 이콘은 미닌과 포자르스키가 모스크바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해방시킨 상징이다. 오전 11시에는 역사공원에서 <여러 민족 - 조국은 하나!>라는 제목으로 대규모 기념 공연이 시작된다. 여러 민족 공동체와 최고의 사할린 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이번 공연은 3부로 나누어 군사적 애국주의 곡목과 러시아의 다양한 민족의 공연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공연이 열리는 동안 전통음식 박람회도 함께 열리며, 사할린 지역 민족총회가 방문객을 위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사할린 등대(마야크)' 부문 상 시상식이 열려 사할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한 사람과 단체들에게 사할린주지사가 상을 수여한다.

러시아 연방평의회, 연중 징병제 법안 승인

러시아 연방평의회가 연중 징병제를 시행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2026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병이 시행된다. 평의회 측은 이 법안의 채택은 징병위원회의 군 입대지원 등록의 업무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징병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새 법안은 또한 전자 입대등록처에 제시된 군 영장에 따라 군 입대 및 징병위원회에 보고하는 새로운 기한을 정했다. 이제 국민은 군 영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병역 등록을 하고 입대처에 출석해야 한다. 예비역이 아닌 시민들은 1년에 두 번,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집된다.

사할린 공항 안전관리에 인공지능 도입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이 교통 보안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

국내에서 개발된 이 시스템은 공항 이용객 수 계산, 대기열 길이 파악, 상황 분석 등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상황분석 기능을 통해 시스템은 미리 설정된 매개변수에 따라 버려진 물건이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승객 등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감지한다.

또한 안전규정 위반 사례뿐만 아니라 길을 잃었거나 몸이 좋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승객들도 파악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신호는 즉시 상황관리자에게 전달되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11월 4일은 우리나라에서 국민 단결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일은 사회의 단결과 화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40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은 미닌과 포자르스키의 지도 아래 단결하여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을 수호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함께 단결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국민 단결의 날에 우리는 과거에 러시아의 자유와 독립을 헌신적으로 수호했던 분들을 기립니다. 그리고 현재 서쪽 국경을 수호

하시고, 조국의 이익을 위해 힘써 일하시는 우리 시대의 모든 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향인 여러분에게 강건함과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화목함이 넘치고, 마음에는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국민 단결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주, 신규 투자 역대 최대

올해 9개월간 사할린주 경제에 2,700억 루블리가 투자된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훨씬 증가한 수치로 사할린주 경제에 대한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초부터 사할린 지역에 2,700억 루블리의 투자금이 유입돼 모든 기반이 새로운 연간 기록을 예상하게 한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주정부 회의에서 언급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 지역이 2024년에 경제에 투자되었던 3,550억 루블리 수치를 넘어서기 위해 분명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 9개월간 투자금은 2,700억 루블리에 달했다. 2024년에 같은 기간에는 208억 루블리가 투자되었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 석유가스단지에서 20억 루블리를 투자한 '사할린 터빈 서비스' 공장이 생산을 시작해 이 회사는 12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로 장비를 반출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가스터빈을 수리할 계획이다.

수산업 분야에서 '가완(기드

로스트로이'그룹' 회사가 오조르스코에 마을에 54억 루블리의 수산업 복합시설을 건설해 25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공장의 가동률은 하루에 700톤에 달하는 생선을 가공할 수 있으며, 또한 '오스트로브노이 크라브'회사는 쉬코탄 섬 연안 대개 조업을 위해 2척의 계잡이 선박을 건조하는데 86억 루블리를 투자하여 20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고르니 위즈두흐'스포츠.관광단지에 18억 루블리가 투자되어 23개의 코티지로 구성된 3차 '선라이즈 힐'아파트 건설이 완공되었는데 이에 68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투자·산업·대외관계부 직무 대행인 보리스 뎀브리코브는 특별혜제로서 선도개발구역, 자유항구, 쿠릴열도의 특별정책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한 가운데 올 초부터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119개의 기업들이 현재 특별혜제 속에 운영되고 있다.

사할린 지역 투자목록에는 총 8,870억 루블리 투자규모의 222개 기획들이 포함돼 있다.

이석배 주러대사 임명...3년여만에 다시 대사로 부임

(서울=연합뉴스) = 외교부는 주러시아대사로 이석배 전 대사가 임명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사는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하고 러시아 대사관에서 1등서기관·참사관·공사참사관·공사를 지냈고 러시아를 담당하는 구

주 2과장,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를 역임했다.

2019~2022년에는 주러 대사까지 지내 외교관 경력 내내 러시아 업무를 담당한 러시아 전문가로 평가된다. 귀임 3년여만에 다시 주러대사로 부임하는 것이다.

새고려신문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구독료는 885,9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텍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의 다정한 마음, '베이비시터 코퍼레이션'을 세우다: 김 빅토리아

김 빅토리아 이고레브나(36) '나냐(베이비시터/보모) 코퍼레이션'의 대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일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유치원에서는 교원이 되고 싶었고, 학교에서는 '교사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매료되었다. 한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사할린의 흠스 크에서 태어나고 자란 빅토리아는 자신의 소망이 단순히 아이들과 일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사할린국립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다.

대학 5학년 때는 '극복(프레오돌 레니에)'장애아재활센터에서 교육심리학자로 일을 시작했다. 특별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것이 처음에 많이 힘들었고, 실전 경험과 특정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더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계속했고, 이론과 실전을 오가며 쌓은 지식은 그녀에게 탄탄한 기초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석사과정까지 학업을 이어가며 교육기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공을 쌓아갔다. 사실 그녀가 지니고 있는 교육 관련 자격증도 많다. 지식이 부족하다 싶으면 공부를 늘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 지식을 잘 활용해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다.

19살에 사할린에 파견된 헬리콥터 군인 조종사인 신랑을 만나 20세에 결혼하고 25세에 첫째 아브로라

를 낳았다. 첫째는 쿠릴의 쿠나쉬르 섬에서 태어났다. 쿠릴 당시에 빅토리아는 많은 봉사를 해왔다. 특히 병원에서 보호 없이 지내는 아이들을 보고 이들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분자'라는 자선재단을 만들었다. 이 재단의 주요 기획은 '나의 사회적 베이비시터'였는데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훈련을 통해 자격을 갖춘 베이비시터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기획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있는 주어린이병원에서 실시됐는데 당시 쿠릴에 있는 빅토리아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자주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때 자원 베이비시터로 자원한 봉사자 3500여 명 중 400명을 뽑아 교육시켰다.

빅토리아는 베이비시터는 꼭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 자원 베이비시터가 병원에서 제대로 활약하지 못해 자선재단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게다가 군인인 남편을 따라 자주 거주지 변동이 있어 14번이나 이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들 브로니스라브(8세)과 딸 미라(3세) 태어났다. 셋째를 기다리며 '나냐 코퍼레이션' 회사 창설을 생각했다. 이제는 그녀 자신에게 베이비시터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나 평판 좋은 회사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직접 그러한 회사를 차리자.'라고.



창업까지는 무려 1년 반에 달하는 철저한 사업계획과 법률, 회계적 업무 준비가 따랐다. 원래는 페트로 자위드스크에서 회사를 차릴 예정이었으나, 가족이 사할린으로 이주해 고향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이에게 베이비시터는 '프레켄 보크'나 엄격한 '메리 포핀스' 같은 이미지가 아니에요."라고 김 빅토리아 이고레브나는 말한다. 그녀의 회사는 베이비시터의 고정관념을 깨려 한다. 현대적인 베이비시터는 각 가정의 가치와 규칙을 존중하는, 아이의 친구이자 도우미라는 것을 강조한다.

'나냐 코퍼레이션' 회사의 베이비시터들은 밝은 눈을 가진 활발한 여성들이다. 그들은 아이와 함께 놀고, 배우고, 산책하는 친구이자,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가들이다. 한 아이에게 여러 명의 베이비시터가 교대로 돌보는 방식은 아이의 사회성과 소통 능력을 풍부하게 하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안전과 투명성은 최우선의 가치다. 모든 베이비시터는 눈에 띄는 유니폼을 입어 아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실시간 온라인 카메라를 통해 부모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직원은 엄격한 계약서에 서명하며, 윤리강령과 상황별 행동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저희 회사의 사명은 가족의 행복, 무엇보다도 부모의 '리소스(자원 resource) 상대'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그녀는 힘주어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 베이비시터는 사치가 아닌 추가적인 자원입니다. 관계를 보존하고, 시간을 확보하며, 아이 발달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부모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자원이지요."

빅토리아를 포함해 총 3명의 베이비시터로 시작한 회사에는 현재 보모가 20명이 됐는데 곧 전문교육을 받는 중인 30명이 더 총원될 예정이다.

사실 육아를 돕는 회사 중 이 같은 회사는 러시아 전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베이비시터 코퍼레이션' 회사의 보모 모두가 교육학 전공자들로서 추천서를 갖추고 있으며, 엄격한 서류심사, 심층 면접, 심리 검사,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리고 선발 후에는 세미나, 놀이방법론, 소아 응급처치 등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실습을 거친 다음에 최종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빅토리아의 열정은 여기서 그치

지 않았다. 사할린 국립대학내에 '베이비시터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행복한 모성' 사할린주 기획의 일환으로 전문 베이비시터를 표준규정에 따라 양성하고 있다. 그녀는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베이비시터 직업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이 직업을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베이비시터 직업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0세~3세 연령대의 영아들을 위한 이 책은 아이들에게 베이비시터가 중요한 직업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아이의 미래를 위한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여기에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오직 전문가만이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빅토리아는 사할린국립대에서 베이비시터를 위한 교육할 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포럼에서 이에 대한 강연을 한다. 베이비시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러시아 사회원의 주최로 개최된 <2023년 전러시아 전문기술경연대회 <최고의 보모>의 절대 우승자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인 김 빅토리아 이고레브나의 열정과 전문성은 '베이비시터'라는 직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사할린의 많은 가정에 든든한 지원이 되어주고 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포베다' 역사기념박물관에서 <작별. 용서> 사진전 개최

10월 26일(일)부터 11월9일(일)까지 '포베다' 역사기념박물관에서 특수군사작전 영웅들의 가족을 기리는 아나스타시야 가이워론의 <작별. 용서> 사진전이 열린다.

기획 사진전은 특수군사작전 중 조국을 지키다 전몰한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장병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화면 속 사진은 단순 역사만이 아니라 항상 믿고 기다리며, 자랑스러워했던 아내와 어머니, 그러나 마음에 비통한 상실감이 남겨진 여인들의 운명을 반영하고 있다.

사진전 관람객들은 전몰장병들에 대한 묵념으로 추모했다.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 누나 라브리크 장관은 "우리는 자주 남성 영웅들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열었지만 후방에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기다리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형제와 전 국가에 사랑을 전달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웬지 말하지 않는다. 가족은 우리의 힘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의 후방전선인 우리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사진들을 선보였다. 이 여성들은 강하고, 용감하며, 상처를 입은 분들이다. 각각의 사진들은 애뜻한 사랑과 영원한 사랑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작별. 용서> 사진전은 상실감을 이겨낸 여인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삶을 이어가는 여인들에 대한 얘기다. 이 기획이 참가자들에게는 사진치료가 되어 각각의 사진들은 우리의 조국을 지키는 남자를 향한 참가자들 자신의 사랑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전시회의 여주인공들에게 있어 이 사진들은 그들이 결코 혼자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기획의 사진작가인 아나크타시야 가이워론은 "이 사진전은 나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획 중 하나가 되었다. 각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에 해주었고, 우리는 함께 울며, 침묵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그들 모두에게 든든한 어깨가 되어주고 싶었다. 주변이 어두워질 때면 당신이 가는 길을 비춰 줄 한 줄기의 빛은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 사진들 속에 등불은 빛 그 자체이다. 내가 각 참가 여성들

의 세계로 들어가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번 기획 사진전의 협력 및 주최로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와 '포베다' 역사기념박물관, 러시아 여성연맹 사할린지부 청년회의소, '리스트' 사진 스튜디오, '오스트로잔카' 러시아 여성연맹 사할린 지부가 나섰다.

러시아 여성연맹 청년회의소의 웨로니카 예리파노와 의장은 "우리는 특히 최전선에서 자신의 친지를 잃은 여성들, 그리고 친지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각각의 여성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 기획은 우리의 후방전선의 여성들이 혼자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В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обеда» открылась фотовыставка «Прощание. Прощение»

С 26 октября до 9 ноября в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обеда» состоится открытие фотовыставки Анастасии Гайворон «Прощание. Прощение», посвященной семьям героев СВО.

Выставочный проект посвятили сохранению памяти об участниках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 сахалинцах и курильчанах, погибших, защищая Родину.

На 36 планшетах с фотографиями отображены не просто истории, а судьбы женщин — жен и матерей, которые верили и ждали, бесконечно гордились, но остались с горькой утратой в сердце. Гости выставки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о погибших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Мы часто делаем выставки, которые посвящены мужчинам-героям, и почему-то не говорим о роли женщины в тылу, которая вдохновляет, которая ждет, которая воспитывает детей, передает любовь к мужу, отцу, брату и стране в целом. Семья — наша сила.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фотографии женщин — наш тыл, наши красавицы. Они сильные, мужественные, ранимые. Каждая фотография — это про любовь, про вечную любовь»,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Фотовыставка «Прощание. Прощение» — это рассказ о женщинах, которые пережили потерю, но продолжают жить дальше. Проект стал для участниц фототерапией, где каждая рассказала свою историю любви к мужчине, который защищал рубежи нашей страны. Для героинь выставки эти фотографии — понимание того, что они не одиноки.

«Этот проект стал для меня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в моей жизни. Каждая героиня рассказала мне свою

историю, с каждой мы плакали, молчали. Мне хотелось стать для всех них крепким плечом в это сложное время. Когда вокруг тьма, всегда должен быть лучик света, на который ты идешь, несмотря ни на что. На этих снимках свеча является тем самым светом. Я благодарна каждой героине, что они впустили меня в их мир», — сказала фотограф проекта Анастасия Гайворон.

Партнерами-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авочного проекта выступили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Молодежная палат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фотомастерская «Лист»,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Со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Островитянка».

«Мы должны поддерживать каждую женщину — ту, которая ждет, и особенно тех, кто потерял своих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Проект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наши героини не одиноки, — мы вместе!», — сказ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Молодежной палаты Со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Вероника Епифанова.

11월 5일 범조인의 날로 제정

러시아에서 새로운 직업인의 날인 '범조인의 날'을 11월 5일로 제정하여 이에 러시아 연방 총리인 미하일 미슈스틴이 승인했다.

기념일 제정에 이고리 크라스노브 대법원장이 제안했다. 범조인의 날은 '범 제정' 표트르 1세의 법령 공포일과 같은 날이다.

В России 5 ноября объявили Днем работника суда

В России ввели новы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 День работника суда. Ежегодно его будут отмечать 5 ноября.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одписа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Ф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С инициативой учредить праздник выступ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Игорь Краснов. День работника суда будет приурочен к дате издания указа Петра I «О форме суда».

세계 최고령의 카메룬 대통령, 8번째로 대선에 성공

카메룬의 폴 비야 대통령이 92세의 나이로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그는 대선에서 53.7%의 득표율로 8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8면에 계속)

"항공료 2~3배 폭등... 재외국민·동포 15만 명 이동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년 6개월째 한국·러시아 간 직항이 중단돼 재외국민과 고려인 동포 15만 명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항공편 복원을 촉구했다.

동북아평화연대와 국내의 시민사회·동포단체 128곳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3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단된 한·러 직항 항공편은 지금까지 한편도 운항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 전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고려인 동포 15만 명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경제·문화·교육 교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직항 노선 부재로 인해 항공료는 2~3배 폭등했고, 경유 시간은 3배 이상 늘었다"며 "유학생이나 고령 동포, 기업인, 문화 교류 단체 모두 큰 불편과 손실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제 제재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기본권과 재외동포 보호 의무를 소



"한·러 직항 항공편 즉각 재개하라!" 동북아평화연대와 국내의 시민사회·동포단체 128곳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러 직항 항공편 재개를 촉구했다.

【동북아평화연대 제공】 "한·러 직항의 중단은 단순한 항공 문제가 아니라 외교 자주권과 실용외교의 신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말로 국민과 동포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한·러 직항 중단은 명분만 남은 제재의 상징이며, 정부는 실용외교의 이름으로 국민과 동포의 이동권을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 7면에 게재.)

사할린동포 2~3세, 영주귀국 조부모·부모 만나러 방한

30일 인천공항 통해 40명 입국... 후손 모국방문지원 사업 재외동포청, 고령 등 이유로 현지 방문 어려운 1세 위해 마련

사할린 동포 2~3세들이 국내 영주귀국해 살고 있는 조부모 또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모국을 방문한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사할린동포 2·3세 40명이 10월 30일부터 영주귀국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재외동포청이 추진하는 '사할린 동포 2·3세 모국방문 지원사업'으로 이뤄진다. 이 사업은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으로 강제이주되었거나 현지에서 출생해 영주귀국한 동포 1세들이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현지에서 살고 있는 가족과 만나지 못해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시작됐다.

그러나 2019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한-러시아 직항 노선 운항 잠정 중단으로 5년간 시행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 이 사업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진행한다. 모국을 방문하는 사할린동포 2~3세에게는 거주지와 한국 간 왕복 항공료, 공항에서 상봉 가족 거주지 간 이동비용 등을 지원한다.

한편,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는 사할린 동포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 계약지원, 국적판정 신청지원, 건강검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주귀국한 동포와 가족과의 만남을 지원하기 위해 1세의 사할린 등 방문, 1세 후손들의 한국방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운영을 통해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할린동포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다.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후손과도 교류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국민의 단결 날 맞아 사할린에서 <예술의 밤> 행사 개최

매년 열리는 문화행사 <예술의 밤>이 올해도 11월 3일 월요일 사할린주 전역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문화의 통합에 국민의 힘이 있다'는 표어로 진행된다. 이 행사는 사할린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의 세계에 깊이 빠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가운데 사할린주 전역에서 전시회, 활동교실, 창작모임, 연극 및 공연 등이 열린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민족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예술의 밤' 프로그램에는 음악가와 무용수의 공연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작 기획의 발표와 체험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러시아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기리는 이 행사는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사할린 주 일반과학도서관, 사할린주 어린이도서관, 인형극장, '옥차브리'영화관, 체호브 센터, '승리(포베다)' 기념 박물관 단지, 지방 박물관, 안톤 체호브 '사할린 섬' 책 박물관, '예술 공장' 및 '성장(로스트)' 아트공간 등에서 개최된다.

한민족 관련 프로그램도 여러 곳에서 마련됐다.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내 '사할린 한인' 상설전시실에서는 저녁 7시에 역사학 박사 진 율리아의 '우리는 함께: 전후 사할린의 러시아인과 한인' 강연이, 오후 8시에는 민속학자 김연희의 '사할린 한인 전통 식탁에서 야생 식물' 강연이 진행된다. 사할린주 미술관에서는 오후 8시 15분에 전통 한복 혼례복에 관한 행사가 열리고,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공원에서 오후 9시 30분에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타악기 그룹 '하늘'의 공연과 기념품 추첨 등 흥미로운 체험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체 행사의 세부 일정은 사할린주 문화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고]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 현실이 되다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몇 가지 소개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한국 소식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우리말 대화가 가능한 어르신들은 정치 분야를 비롯한 일부 뉴스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K-POP(한국 음악)과 K-Dance(한국 춤)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국제연합(UN)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가지 분야에서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인터넷 속도, 행정 효율(전자정부), 조선 사업, 반도체 사업, 배터리 사업, 로봇 밀도(공장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비율), 의료 접근성, 특히 출원(인구 대비 특허 출원 수), 문화 수출, 교육열이 그것입니다.

문화 수출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뉴스들은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K-Contents(한국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책 등) 수출액 183억 달러! 2020년 113억 달러 대비 60% 증가
-2024년 K-Food(한국 음식) 수출액 130억 달러 돌파! 해마다 10% 이상 증가!

-2024년 K-Beauty(한국 화장품 등 미용 제품) 수출액 103억 달러!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자 수 폭발적 증가! 2025년 600만 명(세계 5위) 돌파 예상

-2024년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 1,800만 명! 2020년 대비 350% 증가!(한국국제교류재단 통계)

-향후 5년 내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 5,000만 명으

로 증가 예상

일본 식민지 시절 상해(상하이) 임시정부 주석을 지내셨고, 독립투쟁을 이끌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소원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富強)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한류라는 이름으로 K-Culture(한국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저는 감히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할린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문화와 우리 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정승훈 사할린한국교육원장)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낙현

관리번호	951404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성명	김 낙 현	한자	金 洛 鉉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1902)	사망년월일	미상
본적	외국 러시아 연해주 니콜리스크		

공훈록

김낙현은 연해주 니콜리스크·우수리스크 안치혜 크라브 마을에서 태어나 1906년 아무르 강변의 니콜라예브스크로 이주하여 소학교를 졸업하였다. 1913년부터 부모를 도와 여장에서

노동자로 일했으며, 1917년 3월 통 제조공장 노동조합 집행부로 선출되었다. 1918년 가을 러시아 연해주 니콜라예브스크에서 박병길(朴秉吉)이 조직한 조선청년동맹(朝鮮靑年同盟)에 가담 『앞으로』를 발간하여 항일외식(抗日外識)을 고취시켰고 1919년 유조심의 빨치산 부대에 참가하였다.

1920년 빨치산연합부대에 참여하여 니항(尼港)전투에서 트라베진부대에 속해 일본군을 격퇴했으며, 1921년 고려혁명군(高麗革命軍)에 합류하여 항일무장투쟁(抗日武裝鬪爭)을 전개하였다.

1922년 1년간 지휘관 과정을 수료하고 적군 제5군 소속 장교가 되었다. 10월 블라디보스토크 해방전투에 참여했다. 1924년~28년에 레닌그라드 국제사관학교 조선인부대에서 교관으로 일하였다. 1928년 모스크바 프룬제육군에 입학하여 1932년 졸업하였으며, 블라고베네스크 주둔 소련군 사단참모장 등을 역임했다. 1930년대 중엽 소련공산당 숙청 당시 체포 수감되었다

가 1940년 석방 복권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洪範圖篇 399~418면, 419~443면

· 한국사회주의의 기원(역사비평사, 2003) 309, 312, 317면

· 高麗共產黨 代表會의 内幕 및 國際共產黨 鮮人部 經過 狀況에 관한 譯文送付의 件(1923. 4. 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鮮人部 過激派(4)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 1996) 53면

묘지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Ли Сок Пэ снова стал посл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в России

29 октября 2025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бъявило о назначении Ли Сок Пэ (이석배) посл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в России

Новой посол Южной Кореи в России считается экспертом по России, так как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й свое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карьеры он работал по российск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Так, в период с мая 2019 года по август 2022 года Ли Сок Пэ уже занимал пост посла в России.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где он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лся в област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Ли Сок Пэ



занимал различные должности в посоль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секретарь, первый секретарь, советник, советник-посланник и посланник). Он работал также генеральным консул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был директором Втор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Европы в МИД РК, отвечающего за Россию.

Ли Сок Пэ обладает превосходными языковыми навыками, включая переводческие, которые ему удалось проявить на прошедших встречах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дготовили петицию за возобновление авиасообщения с Россией

К документу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более 120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 иностра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ЕУЛ, 28 октября. /ТАСС/. Более 120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 иностра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дготовили петицию с требованием к властя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зобновить прямое авиасообщение с Россией. Об этом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ТАСС рассказали в организации "Солидарность во имя мира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нициаторы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с марта 2022 года "не было ни одного прямого авиарейса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Ф".

"В результате серьезно нарушено право на передвижение примерно 150 тыс.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гражд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оссии, фактически были остановлены обмены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 сказали они.

"Мы, руководители 128 организаций, <...> сформируем совет и будем требовать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корейшего решения с помощью общенациональной кампании по сбору подписей", - заявили активисты.

28 октябр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ни провели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ю, посвященную подаче петиции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с Россией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офис президента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Мы считаем,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небрегает своей обязанностью по защите базовых прав граждан 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под предлогом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 заявили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во главе с "Солидарностью во имя мира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о словам активистов, "остановка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 это символ санкций, от которых осталось только название",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лжно восстановить право на перемещение граждан 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о имя прагмат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Остановка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 не только вопрос гражданской авиации, но и вопрос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и доверия к прагматичн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 добавили они.

Требования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о-первых,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лжно немедленно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о поэтапном или полном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прямых авиарейсов и опубликовать планы", - заявили активисты. Они также призывают "пересмотреть фактические масштабы участия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ях", начав с авиасообщения.

Помимо этого, инициаторы петиции считают необходимым четко сформулировать в качеств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курс в вопросах, связанных с Северным морским путем и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м с "северным соседом". Также НКО призываю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оценить ущерб, нанесенный организациям, работающим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образования, коммерческим компаниям и согражданам, а также подготовить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4 октября в число поддержавших петицию вошли 92 южнокорей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и 36 российских. Среди них культур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издания и телеканал,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центры, занимающиеся изучением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ассоциаци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вернувшихс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Завершилась программа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Кореи на Сахалине

В 2025 году завершился очередной этап гуманитарной программы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посещению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ыехавших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 Корею, их детей 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Сахалине.

В этом году Сахалин посетили более 180 человек, прибывших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работников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Наш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стречали и проводили всех гостей — среди прибывших было немало пожилых людей и инвалидов, нуждавшихся в особом внимании и поддержке. Только во второй групп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12 инвалидов на колясках.

29 октября стартовала обратная поездка

— дети и внуки сахалинцев, по линии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отправились в Корею, чтобы навестить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и родных.

С Сахалина вылетели 34 человека. Маршрут проходил через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ее — Китай и Инчхон.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к групп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участники из Хабаровска, Владивостока, Москвы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поездки составило 49 человек.

Программа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Кореи остаё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трогательных и человечных проектов, объединяющих поколения и страны, разделённые историей.

(Источник:

https://t.me/Korean_Telegraph/2383)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двенадцато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Редколлегия

Здравствуй, Иль Гон (日坤 일곤)!

Надеюсь, что с мамой всё в порядке, и ты тоже в порядке, а также Си Гон (時坤 시곤), Хэ Гон (海坤 해곤), ваша сестра и её семья, и дети вашего племянника — все здоровы.

Ваш старший брат всегда думал о родине, и вы своими молитвами помогаете ему оставаться в здравии.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о радио говорят о возвращении на родин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были задержаны, но пока нет то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том, как будет решаться эта проблема (1). Конеч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ботает над этим вопросом, но это займёт много времени.

Ситуация такова, что пока только те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женаты на японках (2), могут оформить документы для выезда. Но до сих пор нет чёткого понимания, когда можно будет уехать.

Среди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есть люди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3), с советскими паспортами (4), с паспортами КНДР (5) и те, кто сменил паспорт КНДР на паспорт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6).

Таким образом, здесь есть четыре группы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Т.е. у кого изначально не было гражданства, и те, кто сменил паспорт КНДР на паспорт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в основном хотят вернуться в Корею.

Мы каждый день слушаем радио, но нет чёткой информации о том, кто может уехать в Корею. Например, говорят, что разрешат выезд тем, у кого нет гражданства, а другим — нет. Япония, которая насильно мобилизовала корейцев, обязана вернуть нас на родину (7).

Прошло уже более 30 лет с момента освобождения, но Япония не предпринимает никаких мер, а только говорит о возвращении мужей вместе с японскими жёнами или о возвращении в Японию 6 тысяч японских жён, отправленных на север Кореи (8). Это аморально со стороны Японии.

На Сахалине с 1958 года часть корейцев приняла гражданство КНДР. Как это произошло? До сих пор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в Корею не интересовались судьбо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о приехал консул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и начал агитировать з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КНДР, и некоторые поддались на эти уговоры.

Однако 30 лет назад, когда в Корею начали обсуждать вопрос возвращ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родину, часть корейцев снова стала гражданами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В любом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 решить эту проблему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Вчера у меня был день рождения, собралось много друзей, но особой радости не было. Когда встретишься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на родине, тогда будет несказанная радость.

Желаю здоровья маме и всем остальным, и заканчиваю это письмо.

С уважением,
Сахалин, город Сахалин (9)
Ким Док Гын (金德根 김덕근)
Перевод: Ин Му Хак

Примечания:

(1) В начале 1970-х гг. среди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ходили слухи о том, что совет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тпустит» корейцев и они могут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Судя по всему, причиной этих слухов были запросы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через

Японию к СССР о судьб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днако, массового выезда так и не случилось, а ажиотаж, который разгорелся в диаспоре привел к трагическому случаю 1977 г., когда 40 корейцев были насильно выдворены в КНДР.

(2) В 1946–1949 гг. совет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овместно с американцами провело массовую репатриацию японцев с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Тогда выезду не подлежало только некоторое количество японцев и японок, которые были в браке с корейцами и оставались с семьей.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Московского соглашения 1956 г. этим смешанным семьям разрешили выехать в Японию. Всег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1957–1958 гг. выехало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71 человек, из них япон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 545 человек,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 407 человек, и 1119 детей.

(3) Большая ча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была лицами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Согласно советским документам в 1962 г. лиц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насчитывалось 20 718 человек (их определяли как «бывших японских подданных»).

(4) Получать корейцы совет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смогли по личным заявлениям после выхода постановления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от 6 мая 1952 г. № 2188-823сс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работе с корейским населением, проживающи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гласно советским документам в период с 1952 по 1958 г. 3200 корейцев приняли гражданство СССР. В 1970 г. гражданами СССР были 19,4 тыс. корейцев, в 1989 г. — 32,2 тыс. из 35-тысяч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5) К 1962 г. 11 475 корейцев-бывших японских подданных приняли гражданство КНДР (также это гражданство имел 3851 кореец, прибывший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6–1949 гг. для работы в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овет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ичиной принят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стала агитация консульства КНДР в Находке и надежда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в Южную Корею. Однако позже эта надежда не оправдалась, и многи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тали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В 1970 г. 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имели 8,3 тыс. человек, в 1989 г. — 300 человек.

(6) Сменить паспорт КНДР на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было нелегко. Корейские старожилы вспоминали в связи с этим: «У нас гражданство был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 хотели отказаться официально, но нам, естественно, не давали. Тогда нас в паспортном столе научили — паспорт КНДР просто в консульство отослать по почте и принести квитанцию... тогда документы принимали на гражданство СССР».

(7) Япония до сих пор официально не признала свою вину за насильствен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корейцев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менно японские власти до войны эксплуатировали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ских шахтах и в других отраслях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а после 1945 г. всячески отказывались от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8) Не совсем понятно, что именно имел в виду автор. Возможно то, что японки, выходящие замуж за корейцев в колониальный период, не вернулись в Японию после войны.

(9) Скорее всего, автор имеет в виду гор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

Юлия Дин, к.и.н.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Ли Чжэ Мён: РК возглавит борьбу с протекционизмом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протекционизм и политик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ая на национ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возрождаются, а выживание становится главной заботой, разговоры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заимном росте и инклюзивном развитии могут показаться пустыми словам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выступая 29 октября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саммита высших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ТЭС) в Кёнчжу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Он отметил, что РК, являясь в этом году председателем АТЭС, стремится возглавить процесс много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ля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растущему протекционизму.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одчеркнул также важнос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ях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и содействия инновациям, особенно в област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И).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на предстоящем саммите АТЭС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едложит инициативу «ИИ для всех».

Министры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и торговли АТЭС встречаются в Кёнчжу

Министры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и торговли 21 экономик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ТЭС) собрались 29 октября в Кёнчжу. Двухдневная встреча проходит на фоне стремления к достижению общей позиции по ключевым инициативам, направленным на рост и совместное процветание, в условиях растущего протекционизма и ослабления мировой торговли.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предпринимают усилия для выработки итогового документа предстоящего саммита лидеров АТЭС,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31 октября-1 ноября. Результаты их работы лягут в основу совместной декларации, которую РК намерена предложить в качестве страны-хозяйки саммита. Между тем, перспективы принятия такого документа остаются мрачными, поскольку участники АТЭС придерживаются разных, порой противоречивых взглядов на вопросы глобального порядка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и. Декларация лидеров может быть принята только на основе консенсуса 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всех членов АТЭС.

Скрипачка из РК заняла третье место на конкурсе имени Паганини

15-летня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крипачка Ким Хён Со заняла третье место на 58-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скрипачей имени Паганини,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в Генуе с 14 по 26 октября. Она стала самой юной финалисткой этого престижного конкурса, получив также премию Марио Руминелли, которая вручается финалисту, набравшему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голосов зрителей, и мемориальную премию Энрико Косты, вручаемую самому юному финалисту. Ким Хён Со, которая играет на инструменте с трёх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воевала вторую премию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узык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имени Джана Баттисты Виотти. Конкурс, названный в честь итальянского виртуоза Никколо Паганини, проводится каждые два года, начиная с 1954 год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крипач Ян Ин Мо занял на нём первое место в 2015 году.

Фильм «Ничего не поделаешь» удостоен наград фестиваля в Ньюпорте

Режиссёр Пак Чхан Ук и актёр Ли Бён Хон получили награды на кинофестивале в Ньюпорте, Калифорния, за фильм «Ничего не поделаешь». Фестиваль в Ньюпорте,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ся уже 25 лет, является крупным независимым кинофестивалем на 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США. Пак Чхан Ук удостоен премии Global Impact за вклад в мировую киноиндустрию, а исполнитель главной роли Ли Бён Хон – премии Artist of Distinction за выдающиеся успехи в кино. Организаторы отметили исключительную актёрскую игру Ли Бён Хона как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международную киноиндустрию и содействие повышению статуса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Фильм «Ничего не поделаешь» повествует о талантливом химике, который теряет работу, и, чтобы прокормить семью, становится серийным убийцей.

Песня Golden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в Billboard Hot 100

Оригинальный саундтрек Golden из анимационного фильма Netflix под названием K-Pop Demon Hunters (Кей-поп-охотницы на демонов) вновь подтвердил свою популярность, поднявшись на одну позицию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ой неделей в главном американском сингловом чарте Billboard Hot 100. Согласн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27 октября, Golden занял второе место, уступив треку The Fate Of Orphelia поп-звезды Тейлор Свифт, которая вторую неделю подряд удерживает лидерство. Ранее Golden в течение восьми недель занимал первое место в «Hot 100» благодаря двойному успеху фильма и песни, но позже опустился до 13-й позиции после выхода нового альбома Тейлор Свифт. Однако композиция быстро вернулась на третье место благодаря устойчивой популярности и на этой неделе поднялась ещё на одну строчку, заняв вторую позицию.

RKI

Бизнес, ИИ, политика и интрига Ким Чен Ына: В Кёнчжу начались осно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форума АТЭС

В Южной Корее стартовала офици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основной части форума АТЭС,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крупнейшим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и деловым событием года для Азии 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Город Кёнчжу на юго-востоке страны, столица древнего царства Силла, превратился в охраняемую арену мировой политики и бизнеса: сюда съехались делегации 21 экономики, министры торговли, старшие должностные лица и главы крупнейших корпораций. Кульминацией недели станут встречи лидеров 31 октября - 1 ноября, при этом параллельно пройдет ряд важнейших двусторонних саммитов, включая переговоры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Си Цзиньпина. Есть вероятность, хотя и небольшая, что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пообщается и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 до границы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совсем недалеко.

Главной темой нынешнего форума стал лозунг "Строим устойчивое завтра: соединяем, обновляем, процветаем". За этой формулой скрываются три ключевых направления: Connect (связность) - укрепление глобальных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переход на "бесбумажную" торговлю и развитие устойчи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Innovate (инновации) - цифров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и развити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как движущей силы новой экономики; Prosper (процветание) - "зеленый" рост и вовлечение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женщин и молодежи в экономическую жизнь региона.

На полях форума министры и эксперты обсуждают десятки конкретных тем - от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перехода до цифров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реди ключевых инициатив - дорожные карты по развитию ИИ и цифровой торговли, новая рамка финансов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Incheon Plan, ориентированная на зеленые финансы и цифровые платежи, а также Jeju Initiative on APEC Startup Alliance - альянс для поддержки стартапов и МСП в регион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ено энергетике и климату: АТЭС вырабатывает общие принципы ускоренного перехода к чистой энергии и защиты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цепочек. Также обсуждается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вызовы стареющих обществ.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этот форум - не просто имидже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а возможность задать правила игры в эпоху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конкуренции и торговых барьеров.

Вообще мероприятия форума проводятся практически по всей Южной Корее в четырех основных мегаполисах - Пусане, Инчхоне, Чечжу и, конечно же, Кёнчжу,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главным центром АТЭС в эти дни и на неделю превратился в "нервный узел" Азии.

Ради форума на берегу озера Помун в Кёнчжу был построен современный конгресс-центр Хвабэк (Hwabaek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или HICO). Его название отсылает к совету Хвабэк времен царства Силла - древнему собранию знатных родов, принимавшему ключевые решения о судьбе страны. Символично, что спустя столетия именно здесь теперь обсуждают будущее всего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Сам город готовился к форуму как к празднику: улицы почистили до блеска, меню в кафе перевели на пять языков, фасады подсветили медиаэкранами. К охране форума привлечены около 19 тысяч человек - полиция, военные, береговая охрана, вертолеты и спецтехника. Введены антидроновые системы, а вокруг основных площадок действуют зоны повышенного контроля. Параллельно проходят около двадцати акций - от антиглобалистских до демонстраций за союз с США и Японией. Полиция обещает

соблюдать баланс между безопасностью и правом на собрания.

Помимо официальных переговоров политиков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АТЭС запланирована и встреча APEC CEO Summit. Это крупнейший деловой форум региона, в котором 28-31 октября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коло 1700 руководителей мировых компаний. Среди них главы Nvidia, TikTok, AWS, Citi, Samsung и Hyundai Motor Group.

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на таком уровне выступит представитель K-pop: певец RM из знаменитой группы BTS заявлен ключевым спикером CEO-саммита. Его речь о мягкой силе искусства и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ях должна стать символом того, что Корея стремится экспортировать не только технологии, но и культуру как новую форму влияния.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всю используют форум и внимание к нему всего мира, чтобы продвигать свои интересы. Так, концерн Hanwha развернул прямо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музее Кёнчжу "оборонно-мирную" выставку. Она посвящена "технологиям ради мира" и ИИ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Главна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ая интрига недели - встреч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Си Цзиньпина, запланированная на 30 октября в Пусане, что в 80 км к югу от Кёнчжу. Это может стать первым очным диалогом лидеров США и Китая за многие годы и задать тон всему форуму.

Для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Ли Чжэ Мёна это шанс закрепить имидж страны как посредника и координатора между крупными державами. Прошла его двусторонняя встреча с Трампом, где было обсуждено торгово-тарифное соглашение.

Кроме того, Ли Чжэ Мён проведет переговоры с Си Цзиньпином и главами ряда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В общем, в кулуарах скучать не придется - различные залы и кабинеты уже давно забронированы службами протокола разных стран для встреч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Не исчезла и старая интрига: встретятся ли Трамп и Ким Чен Ын. Южнокорей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оценивает вероятность как "низкую, но не нулевую". В 2019 году на подготовку неожиданной встречи лидеров США и КНДР в Пханмунчжоме ушло всего 30 часов.

Трамп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хотел бы пообщаться с Кимом, учитывая такой удобный случай. Так что сейчас все зависит от Кима - если он согласится, то можно быть уверенным, что Трамп бросит все и доедет до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от Кёнчжу до нее всего около 300 км. Вместе с тем Пхеньян, как отмечают местные эксперты, дал понять, что пока не готов к общению и делает ставку на Москву: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Чхе Сон Хи буквально накануне отправилась с визитами в Россию и Белоруссию, показывая,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дипломатия выбрала иной приоритет. А без ее участия переговоры Трампа и Кима вряд ли возможны.

К финалу недели, когда будет кульминация форума, включая самые главные встречи 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итогам заседаний ожидается совместная декларация АТЭС по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е,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и устойчивому росту. Оптимисты ждут конкретных дорожных карт по "зеленому" финансам и цепочкам поставок, пессимисты - новых общих формулировок. Так или иначе, Кёнчжу уже стал ареной, где пересеклись политика, технологии и культура, а сама Корея - главным режиссером этой недели в 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Олег Кириянов, 29 октября 2025 г., РГ)

Трамп и Ли Чжэ Мён неожиданно согласовали "пакетную сделку" на 350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Кёнчжу, где 29 октября прошли ключевые встречи саммита АТЭС, состоялось важнейшее событие в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Сеула и Вашингтона. По итогам американ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стороны, вопреки ожиданиям и собственным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заявлениям, объявили о достижении соглашения по масштабному инвестиционно-тарифному пакету. Общий объем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вложений составит 35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а взаимные тарифы закреплены на уровне 15 процент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ереговоры, продолжавшиеся почти пять месяцев, завершились компромиссом, который, по словам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не стал результатом односторонних уступок.

Деньги, лимиты и структура сделки

Как пояснил глава Поли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м Ён Бом, из общей суммы 35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примерно 200 миллиардов будут внесены в виде денежных инвестиций, а еще 150 миллиардов - в рамках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финансовых гарантий, известного как "проект Масуга". При этом установлен жесткий годовой лимит: не более 2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в год, что, по словам корейских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позволит избежать перегрева валютного рынка и поддерживать стабильность курса вон.

(Продолжение на странице 7).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т федер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западного объез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расширение Корсаковской трасс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и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лючевых объектов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еде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Об это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оговорился с главой Федерального дорожного агентства (Росавтодора) Романом Новиковым.

— В этом году мы завершаем работу по расширению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частка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на выезде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сторону Корсакова. А в будущем году при участии Росавтодора перейдем к реконструкции трассы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Корсаков – она тоже станет четырехполосной.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принципиальная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о продолжении второго и третьего этап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западного объезда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силами Федерального дорож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ервый участок этой магистрали будет введен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будущем году. Это позволит вывести грузовой транспорт за пределы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низить аварийность и улучшить эколог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 подытож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расширения участков проезжей части с двух до четырех полос движения на трасс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Корсаков. По этой дороге проходит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ого потока юж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а. В рамках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запланированы работы по переводу проезжей части на участке от базы Восток до Корсакова в четырехполосное исполнение с устройством барьерного ограждения. Это поможет предотвратить выезд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на встречную полосу и существенно снизит уровень аварийности. Работы стартуют в 2026 году.

Западный объезд соединит три ключевые автомобильные трассы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Корсак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Холмск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ит транспортную ситуацию как в самом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так и на подходах к нему.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жизни» регион реализует первый этап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рассы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8,3 км. Общ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участка обхода составляет 23,7 км.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обсудили планы по продолжению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участков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Эта федеральная дорога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834 км проходит вдоль восточного побережья Сахалина с юга на север и соединяет ряд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региона. По трасс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междугороднее автобусное сообщение и движение транзитного грузового транспорта. Федеральным статусом автодорога получила в 2021 году, на тот момент более 200 км трассы не имели асфальтобетонного покрытия. 150 км грунтовых разрывов уже ликвидировано. В 2025 году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ведутся на участке трассы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более 14 км – с 705-го по 719-й километр.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дорожники заняты устройством земляного полотна и слоев дорожной одежды. Совместно с Росавтодором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максимальном ускорении работ по ликвидации грунтовых разрывов на трасс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 их наибольший объем будет выполнен в 2026 году. Кроме того, заключе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контракты н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этой трассы на участке с 665-го по 705-й км. Здесь заменяют переходный тип покрытия на асфальтобетон. Завершение работ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намечено на период 2026-2027 года.

В числе важных проектов региона –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участков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Холмск. В частности, интенсивные ремонтные работы ведутся на отрезке с 84-го по 88-й км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Холмск.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редусмотрена ликвидация деформаций и поврежденной земляного полотна, включая стабилизацию и укрепление верхнего оползневого склона на участке с 86-го до 88-ой км. Кроме того, планируется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водоотведения путем ремонта или замены существующих искусственных сооружени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объекте проводятся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Согласно контракту, ввод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запланирован в 2027 году.

В 2025 году дорожники приступили к капремонту участков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Холмск с 26-го по 35-й км, с 47-го по 53-й км и с 53-го по 56-й км в Анив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Общ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этих объектов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17 км. Специалисты уже завершили работы по усилению дорожной одежды и устройству нового асфальтобетонного покрыти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едется обустройство: на участках у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дорожные знаки, наносят разметку и другие элементы безопасности.

— Также на совещании мы поставили вопрос о синхронизации с Федеральным дорожным агентством работ по ямочному ремонту. Регионом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что в юж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а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завершается до 1 июня, а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 до 1 июля. Мы хотим, чтобы федеральные партнеры тоже придерживались этих принципов и выполняли дорожные работы в обозначенные срок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обсудили итоги реализации нацпроект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жизн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обновляется участок региональной трассы Невельск – Томари – аэропорт Шахтерск длиной 4,1 км между селами Калинино и Зырянское. Продолжается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участка региональной дороги Дальнее – Елочки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5,66 км.

Отдельно Роман Новиков отметил качественную совместную работу по снижению основ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аварий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По итогам девяти месяцев 2025-го на федеральных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ах, проходящих по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ДТП снизилось на 26 %, пострадавших в них – на 17 %, а погибших – на 50 %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нтрольные цифры приема в Сахалин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 2026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увеличить до 1500 человек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Москву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министром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Валерием Фальковым.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тем беседы стало развитие высшей школ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базе существующе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здается кампус СахалинТех. Уже сегодня вуз ориентируется на подготовку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заказам предприятий, работающих в приоритетных отраслях рег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энергетика, нефтегазовый комплекс,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экономика Мирового океана, транспорт и логистика. В этом году в остров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был большой конкурс, активно подавали документы и абитуриенты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В связи с этим возник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величить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контрольные цифры приема до 1500 абитуриентов.

— Каждый год у нас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в вузе возрастает примерно на 25 процентов.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с вводом в строй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число абитуриентов достигнет 4 тысяч человек. Рег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ка нуждается в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ах и вуз должен их готовить,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создаются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и обучения студентов. Современный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будет сдан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следующем – войдет в строй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Вуз участвует в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Приоритет 2030». Работает передовая инженерная школа. Недавно руководство «Газпрома» решило сделать университет опорным вузом компании. Все это создает хороший задел для качественной подготовки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их гарантированно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Чтобы помочь молодым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хотят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но сталкиваются с финансовыми трудностя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гиона ввело новую меру поддержки. Теперь первокурсникам местных вузов компенсируют половину стоимости обучения на платной основе.

Также губернатор и глава Минобрнауки обсудили совместную работу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 юных изобретателей.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на Сахалине в августе 2026 года.

На протяжении 20 лет выставка проводилась в Японии, Индии, Китае, Индонезии, Таиланде, Вьетнаме и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Теперь престиж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объединяющее молодых новаторов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мира, впервые состоится в России. Оргкомитет выставки при голосовании в Оске единогласно выбрал Сахалин в качестве места проведения очеред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мнению Валерия Фалькова, это решение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одтвердило, что все попытки устроить изоляц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обречены на провал.

Летом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на Сахалин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придут сотни юных изобретател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7 до 18 лет. Международное жюри будет оценивать их разработки по 12 критериям. Основные – креативность, работоспособность, применение законов физики,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рынком, пат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экологичность.

— Ближайшее будуще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язано с передовыми решениями в сферах добычи и переработки нефти и газа, энергетики, транспорта,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экономики океана. А для этого нужны люди, способные генерировать прорывные разработки, проще говоря, изобретатели. Поэтому мы делаем акцент на инженер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реобразуем учебные программы в наше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д запросы бизнеса. Студентов для него, считая, нужно воспитывать со школьной скамьи. У нас создана система выявлени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юных талантов. В школах действуют «Точки роста», открыты «Кванториумы». Дети изучают робототехнику и беспилотные системы.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юных изобретателей вдохновит наших ребят на новые разработки и даст им возможность конкурировать с командами из России и из-за рубеж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бладает большим опытом проведения круп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Здесь

создана вся необходим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В частности,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действую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и конгрессно-выставочный центр.

Рекордная сумма инвестиций привлечена в экономик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2025 года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демонстрирует высокие показатели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С начал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экономик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ожено рекордная сумма – 27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озвучена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Резиденты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х режимов в этом году создал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1,5 тысячи рабочих мест. Запущен ряд значимых проектов в нефтегазовом секторе,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м комплексе, туризме.

— Несмотря на непростые внешние условия, бизнес вкладывает в нашу экономику большие средства. Есть все шансы побить прежний рекорд. За девять месяцев этого года уже достигнут показатель в 270 млрд. За этот период в 2024-м было вложено 208 млрд, а всего за год – 355 млрд. Привлечение инвестиций – не просто цифры. Это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новые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рабочие места для наших земляков, благополучие их семей, а также реализ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за счет финансовой отдачи от проектов,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ентябре на базе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заработал цех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Турбина Сервис». Предприятие обслуживает проекты по добыче углеводородов и объекты энергетики, выпускает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е теплотехниче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а теперь занимается также ремонтом газовых турбин и их комплектующи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линия, не имеющая аналог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зволяет выполнять работы на месте, без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ывозить технику за пределы региона и страны.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составил 2 млрд рублей, создано 122 рабочих места.

Крупные проекты реализованы в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октябре в селе Озер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открыт крупны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комплекс. Предприятие способно перерабатывать в сутки до 700 тонн кеты, трески и тихоокеанской сельди. Здесь также будут выпускать широкий ассортимент мороженой продукции, холодиль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зволя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хранить до 3000 тонн. Планируется также производить рыбную муку и рыбий жир. Предприятие «Гавань» (группа компаний «Гидрострой») вложило в проект 5,4 млрд рублей и создало 250 рабочих мест.

Компания «Островной краб» построила два крабовых судна для работы в акватории острова Шикотан. 8,6 млрд рублей инвестиций и 209 рабочих мест – результат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Не осталась без внимания сфера туризм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ОО «Сахалин шале» завершил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ретьей очереди апартаментов Sunrise Hill. Это 23 коттеджа на 101 номер.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 1,8 млрд рублей, создано 68 рабочих мест.

Как отметил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инвестици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внешних связ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рис Дымбрылов, создан большой задел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средств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егодня в портфеле профильного ведомства 222 проекта на общую сумму 887 млрд рублей. Они охватывают большинство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портфеля – проекты резидентов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ТОР),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СПВ)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РФ). Для них, в частности, установлены льготы по налогам на прибыль и имущество, на социальные взносы. В упрощенном порядке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Такие условия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х режимов делают начинания выгодными инвесторам. В итоге созда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импульс дл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 Намечалась положительная бюджетная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х режимов. Появилась налоговая отдача для консолидированного бюдж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реализации их проектов. Сегодня резидентами ТОР и СПВ являются 119 компаний. С начала 2025 года привлечено 14 новых резидентов. Совокупная стоимость проектов превысила 265 млрд рублей. Всего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ние порядка 13 тысяч рабочих мест. 8,3 тысячи уже создано, – сообщил Борис Дымбрылов.

Зона устойчивого роста остаются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 рамках особого преференциального режима на Курилах сегодн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42 компании. В этом году привлечено 12 новых резидентов. Общий плановый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 6,5 млрд рублей, будет создано 700 рабочих мест.

Работа остров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созданию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бизнеса стабильно получает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Несколько лет подряд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ходит в ТОП-4 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а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Позиция субъекта Федерации в нем определяется на основе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о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едущих бизнес в регион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트럼프와 리 Чжэ Мён неожиданно согласовали "пакетную сделку" на 350 млрд долларов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анице 5)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добилась также права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тсрочивать взносы или 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их объем, если на валютном рынке возникнет волатильнос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еул фактически получил возможность регулировать темпы инвестиций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экономической конъюнктуры, не нарушая общих обязательств.

"Коммерческая рациональность" и защита от рисков

Ключевым элементом соглашения стали механизмы защиты инвестиций. В текст меморандума будет внесено положение о том, что финансироваться могут лишь проекты, обладающие "коммерческой рациональностью". Для отбора и мониторинга будет создан совместны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комитет и консультативная комиссия, которые смогут блокировать вложения в экономически сомнительные инициативы.

Кроме того, по согласованию сторон создается "зонтичная" структура специальных компаний (SPC),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убытки одного проекта смогут компенсироваться прибылью другого. По замыслу Сеула, такая схема минимизирует совокупные риски и делает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ожения менее уязвимыми.

До полного возврата основной суммы и процентов прибыль от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будет делиться поровну - 50 на 50. Если же в течение двадцати лет возврат не будет завершён, условия распределения доходов могут быть пересмотрены.

Американская сторон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настаивает, чтобы после погаш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прибыль делилась в соотношении 9 к 1 в пользу США, и, по данным источников, это положение имеет высокие шансы на включение в финальный документ, однако пока это только проект.

Новые тарифные правила

Одним из центральных пунктов соглашения стало закрепление взаимных тарифов на уровне 15 процентов. Этот параметр был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согласован еще летом, однако теперь получил офи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Для Сеула особенно значимо то, что автомобильные пошлины США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будут снижены с 25 до 15 процентов.

Ряд отраслей получит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е или нулевые ставки. Так,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ая и деревообрабатывающая продукция получат режим наибольшего благоприятствования, а авиадетали, дженерики и природные ресурсы, не добываемые в США, - освобождаются от пошлин.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ено полупроводникам: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илась, чтобы для ее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условия были не хуже, чем для Тайваня, одного из ключевых конкурентов на этом рынке.

Не менее важным для Сеула стало и то, что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сектор - включая рис и говядину - останется защищенным. Южная Корея отказалась о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ткрытия рынка и ограничилась мерами по улучшению санитарно-карантинных процедур.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и процедурные шаги

Для запуска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фонда потребуются принятие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Как поясн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осле внесения законопроекта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тарифное снижение будет применено задним числом - с первого дня того месяца, когда документ поступит в парламент.

Что касается вопросов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 их проработк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итогового "факт-листа" займет еще два-три дня, но текст торгового меморандума уже практически согласован. После подписания министро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двух стран начнется процесс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утверждения.

"Баланс арифметики и политик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аналитики отмечают, что итоговая структура соглашения напоминает пакетную сделку США и Японии на 55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но содержит больше защитных элементов с точки зрения Кореи. Для Сеула это попытка совместить политическое сближение с прагматичным контролем рисков.

Среди ключевых выгод эксперты называют стабильность тарифного режима, допуск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к американским проектам и сохранение валютного баланса. Опасения вызывает лишь пункт о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ии прибыли после возврата инвестиций, однако, как отмечают чиновники, основная фаза вложений защищена равным делением доходов, что снижает потенциальные потери.

Итоги и оценки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в результате переговоров США пошли на несколько важных уступок - согласились на поэтапные инвестиции с лимитом \$20 млрд в год, снизили пошлины и допустили механизм совместного контроля за инвестициями. Для Вашингтона это редкий случай, когда партнер получает равные права в принятии решений. Однако уступки не односторонние. США сохраняют преимущество в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поскольку обсуждаемая формула 9:1 в распределении прибыли, если будет утверждена позже, позволит им получить большую долю доход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сновные риски уже будут сняты.

Для Сеула же нынешний результат - это баланс между защитой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и сохранением альянса.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илась равных условий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и зафиксировала принцип "коммерческой рациональности", ограничив возмож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давления. В кратк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соглашение выглядит как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победа Сеула, а в долгосрочной - как взвешенный компромисс, где обе стороны сумели сохранить лицо и выгоду.

Таким образом, завершённые в Кёнчжу переговоры стали одним из самых значим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оглашений последнего десятилетия. Они показали, что в отношениях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наступает новая фаза - прагматичная, взаимно регулируемая и лишённая избыточного идеологического давлени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한·러 직항 항공편 조속 재개 촉구 기자회견(요구 내용)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3년 6개월째 끊긴 한·러 직항 항공편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동북아평화연대와 국내외 128개 시민사회·동포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2022년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단된 한·러 직항 항공편은 지금까지 단 한 편도 운항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전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고려인 동포 약 15만 명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경제·문화·교육 교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직항 노선 부재로 인해 항공료는 2~3배로 폭등했고, 경우 시간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학생, 고령 동포, 기업인, 문화 교류 단체 모두가 큰 불편과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국제 제재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기본권과 재외동포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러 직항의 중단은 단순한 항공 문제가 아니라 외교 자주권과 실용외교의 신뢰 문제입니다.

정부는 더이상 '검토 중'이라는 말로 국민과 동포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러 직항의 조속한 재개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며, 실용 외교의 시작입니다.

한·러 직항 중단은 명분만 남은 제재의 상징입니다. 정부는 실용 외교의 이름으로 국민과 동포의 이동권을 복원해야 합니다.

우리 128개 단체 대표는 오늘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단체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요구>

첫째, 정부는 한·러 직항 항공편의 단계적 또는 전면 재개를 즉각 결정하고 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 제재의 현실적 범위를 재검토하고, 민간·인도·문화 목적의 항공편부터 복원해야 합니다.

셋째, 북극항로·북방경제 전략과 연계한 항공 재개를 국가정책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넷째, 고려인·재외국민·기업·교육·문화 단체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여단체(가나다 순)

- 10월 24일 현재 128곳(대한민국 92곳+러시아 36곳)

<대한민국>

• 간장포럼 우태영 • 강원도 동북아포럼 대표 이영준 • 건축사사무소 선진 대표 김성진 • 경북고려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장성우 • 경주시외국인도움센터 이사장 신은숙 •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한광진 •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장 이형한 • 광주민주동우회 정병철 • 광주3.15의거연구회 이정재 • 광주시민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 김용권 • 광주시민단체협의회장 박미경 • 광주요양보호사협회 박명심 • 광주장애인미술협회 전자광 • 광주·전남재향군인회 회장 나중수 • 광주정신상생위원회 이현채 • 광주한백통일재단 박찬용 • 광주충현원 원장 유혜량 • 광주카톨릭미술협회 김영주 • 글로벌장보고재단 이사장 김덕룡 •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 대표 손은숙 • 나모문화네트워크 대표 조혜수 • 윤경미 • 남녘현대사연구소 소장 박동기 • (사)남북경협운동본부 대표 이장희 •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이한용 • 남해에너지 협동조합 박문성 • (사)너머 이사장 신은철 • 내포생태역사문화연구소 유미경 • 누리누에 대표 최성희 • 뉴월드무용단 안산 대표 OGAY VYACHESLAV • 대동세상협동조합연합회 대표 김일섭 • (사)대한민국장애인예술협회 이사장 이샤야 • 대한장애인사격연맹 대표 문상필 • THE1904 대표 정일선·홍인화 •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원장 박명호 • (사)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사장 이승율 • 동북아 생명누리 협동조합 이사장 이오석 • (사)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김현동 • 동포세계신문 대표 김용필 • 무등예술단 원장 김순정 •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장 이석우 • (사)뿌시

긴문화원 이사장 김선명 • 사단법인 우리민족 김광훈 • 상생통일연대 대표 최만정 • 삼강포럼 공동대표 장경률 •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장 정균표 •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임우성 • 세계여성협회 총재 이효정 • (사)소통과혁신연구소 이사장 정성희

• 안산 고려인센터 미르 대표 김승력 •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해양가치키움터 대표 송영미 • (사)안산희망재단 이사장 이천환 • NK비전센터 센터장 박우철 • 엘피스토리 대표 이금구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홍상영 • 월곡고려인문화관 결관장 김병학 • (사)유라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신이영 • 유라시아 커넥터 대표 김경호 • 이재명연구회 대표 허재원 • 이주민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곽만정 • 이주민종합지원센터(광주) 센터장 전득안 • 자연환경사랑연대 최윤배 • 재외동포교류협회 대표 홍경숙 • 재외동포신문 대표 박철의 • (사)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장 로창현 • 재외동포연구원 이사장 임채완 • 재외동포포럼 이사장 조룡제 • 전북대 고려인연구센터 센터장 윤상원 • 전 연해주한인유학생회 회장 장혜민 • 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최상구 • 청미래재단 이사장 임진철 •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문영숙 • 70년대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 최순영 • 통일 tv 대표 진천규 • 평화와민족통일원탁회의 대표 노태구 • (사)평화철도와 나아지는 살림살이 권영길 •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대표 강신하 • 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 윤기중 • 한길 남북교류사업단 대표 정명환 • 한러교육문화재단 이사장 김원식 • 한러빅토르최기념사업회 회장 유은재 • 한·러상공센터 대표 최기영 • (사)한러친선협회 이사장 문종금 •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이자형 • 한·중대일리신문 대표 조동우 • 해외동포언론사협회장 김훈 • (사)허엄기념사업회 이사장 손중양 •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장 김영용 • (사)화해평화연대 이사장 전수미 • 희망래일 이사장 이동섭

• 대한고려인협회 회장 정영순
•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회장 권경석

<러시아>

•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회장 김니콜라이빠트로비치
• 러시아 연해주 동북아평화기금 이사장 주인영
• 러시아 연해주 한인학생회 대표 한은택
• 러시아한글학교협의회 대표 서지연
• 모스크바 전구 러시아 고려인 협회 회장 조 바실리

• 민주평통 모스크바협의회 회장 박형택
• 아르츰 가무단 단장 김따찌야나 니콜라예브나
• 우수리스크 최재형고려인 민족학교 교장 김 발레리아

•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장 박순옥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회장 임종환
• 새고려신문 대표 배웁토리야
• 하바로프스크 극동 시베리아 고려인협회 회장 백규성

<러시아한글학교협의회 소속 한글학교 25곳>
• 바로네즈한글학교 교장 서지연 • 불고그라드 은혜한글학교 교장 김광준 • 풀리쇼프카한글학교 교장 유가이 따찌야나 • 모스크바토요한국학교 교장 유옥경 • 올리스카야한글학교 교장 김빅토리아 • 우파한글학교 교장 오경희 • 날칙한글문화학교 교장 김철훈 • 금강산문화학교 교장 최윤희나이 • 아조프고려인문화한글학교 교장대리 김아르가디 • 모스크바한글학교 교장 최필리아 • 노보니콜스꼬예한글학교 교장 이이리나 • 바클라노브카한글학교 교장 한이리나 • 프로홀라드니한글학교 교장 양이네사 • 고려청년학학교 교장 엄알렉산드르 • 사라토프한글학교 교장 빈일숙 • 카잔한글학교 교장 정문주 • 모스크바한인선교사회한글학교 교장 민종욱 • 화선예술한글학교 교장 이나탈리아 • 불고그라드 세종센터한글학교 교장 권주영 • 마티이스크한글학교 교장 전블라지미르 • 카잔불가한글학교 교장 주선민 • 백학한글학교 교장 김엘리자베타 • 따따르한글학교 교장 김영숙

• 모스크바한국문화한글학교 교장 하종혁 • 한울한글학당 교장 천미영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당선 시 그의 나이는 92세로 그는 세계 최고령 현직 대통령이 되었다.

10월 12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폴 비야 대통령의 주요 경쟁자인 카메룬 민족구원전선의 수장인 이사 치로마 바카리는 35.2%를 득표했다.

대선에서 당선된 폴 비야 대통령은 카메룬 공화국 헌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오는 11월 6일 수도 야운데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게 된다. 대통령직 임기 7년을 마치면 그의 나이는 99세가 된다. 폴 비야 대통령은 공화국의 독립 이후 1982년 2대 대통령으로 처음 당선되었고, 1975년부터 1982년까지는 총리직을 역임했다.

Starliest head of state in the world — president of Cameroon — won the elections for the eighth time

폴 비야가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그의 나이 92살 때였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인 카메룬의 대통령 폴 비야가 10월 12일 치러진 대선에서 35.2%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그는 92세의 나이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재직 중인 현직 대통령이 되었다.

주요 경쟁자인 카메룬 민족구원전선의 수장인 이사 치로마 바카리는 35.2%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다.

대선에서 당선된 폴 비야 대통령은 카메룬 공화국 헌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오는 11월 6일 수도 야운데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게 된다.

대통령직 임기 7년을 마치면 그의 나이는 99세가 된다. 폴 비야 대통령은 공화국의 독립 이후 1982년 2대 대통령으로 처음 당선되었고, 1975년부터 1982년까지는 총리직을 역임했다.

폴 비야는 1975년부터 1982년까지 총리직을 역임했다.

1982년부터 1987년까지는 총리직을 역임했다.

<러시아는 기회의 나라> 시상 부문, 사할린 주민 200명 신청

러시아를 비롯해 58개 국가에서 <러시아는 기회의 나라> 부문 상에 도전하고자 5만8천 명 이상이 참가신청을 했다.

참가신청은 종료되었고, 이어 경연 참가자들은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국민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사할린의 주민들은 지난 9월 26일부터 한 달간 192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 <문화>, <선행> 부문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참가에 교육자, 기업가, 환경보호운동가, 교육단체, 문화단체, 스포츠단체, 언론단체의 대표자들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전자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조성하고, 생활 주변을 개선시키며, 추진하는 일에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들이다.

현재 신청서는 기술적인 심사과정을 거치는데 그 시스템은 설문지의 완성도와 시험 결과, 동영상 자료 검토로 진행된다. 이후 경연 참가자들은 다음 단계로 진출해 268명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의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는데 이들은 부문별 상에 도전하는 참가자들이 활동하는 그 효력의 정도와 활동 수혜자의 수, 확인된 결과들의 실재를 평가한다.

평가를 통해 5만8천 개의 설문지 중 단 100개만 맥스(MAX)를 통해 국민투표에 부친다. 최종 결과는 올해 12월에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기반으로 선정되어 순위가 매겨져 발표된다. 우승자들은 자신의 기획 실현을 위해 지원을 받고, '스네쥬' 전문 행정을 위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얻으며, '노위스티 메일'과 '젠' 정보협력자들의 미디어 지원을 받고, '디알로그(대화)' 온라인 플랫폼 교육프로그램과 '메가놈' 창조산업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트위이 호드' 기획의 견습을 비롯해 로스몰로조쥬(러시아 청년청) 포럼

과 '최고들의 활동'에 함께 지도력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Почти 200 сахалинцев подали заявки на премию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Всего свыше 58 тысяч человек из России и еще 58 стран заявили о намерении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емии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Прием заявок подошел к концу, далее участников ждет оценка экспертного совета и этап народ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За месяц, с 26 сентября,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али 192 заявки. При этом наибольше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овались номинации «Образование», «Культура» и «Добрые дела»,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премии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Заявки поступили от педагог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эколог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уче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медиа. Все они создаю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других людей, улучшают жизнь вокруг и вдохновляют последователей на инициативы.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заявки проходят технический отбор. Система проверяет завершенность анкет, результаты тестирований, наличие видеовизитки. Затем конкурсантов допускают к следующему этапу, где их заявки рассмотрит экспертный совет из 268 человек. Они оценят масштаб пользы деятельности участников премии, количество благополучателей и наличие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На этап народ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в МАХ пройдут всего 100 анкет из 58 тысяч. Итоговые результаты определят на основе результатов экспертной оценки и места в рейтинге и объявят в декабре этого года.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ат поддержку в реализации своего проект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йти обучение в Мастерской управления «Сенеж», медийную поддержку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партнеров «Новости Mail» и «Дзен», доступ к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программам онлайн-платформы «Диалог» и академии творческих индустрий «Меганом». Кроме того, они поучаствуют в стажировках проекта «Твой ход», форумах Росмолодежи и программе наставничества совместно с «Движением Первых».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полугодие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